

수능 영어 학습법

(17수능 영어 5등급 -> 21수능 영어 만점)

By lall(나중에 다른 아이디로 올릴 거임!)

목차

1. 들어가는 글 - 글쓰이의 개인적 이야기 그리고 당부의 말씀(?)
2. 1년 학습의 틀(커리큘럼 짜기)/인강과 추천 교재
3. 단어 암기 방법(3등급 이하 필수)
4. 구문 강의 활용법
5. 독해 강의 활용법
6. EBS 교재 학습 및 활용법
7. 파이널 기간 영어 학습 방법
8. 잡다한 QnA

1. 들어가는 글

아래 내용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수험 생활 중에 스스로 부딪치면서 깨달은 몇몇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영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정도만 얻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필자는 아주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에 영어라는 과목을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수험생활에 임했음을 알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은 반말,구어체임)

내가 제일 처음 치룬 수능은 17학년도 수능 시험이었다. 무려 4년 전 시험으로 이 시절엔 영어가 상대평가였고, 내 성적은 5등급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니! 과학고를 나왔는데 영어가 5등급이 말이야?! 그냥 시험 치다가 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영어 실력은 저 점수가 맞았고, 시험 시간 내내 한 번도 잔 기억이 없다.

진짜 풀 수 있는 문제는 열심히 풀었다. 사실 뭐.. 내가 영어를 거의 5년 동안 손을 놓고 살았으니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해결하고 가야할 것 같다. '지방 과학고를 나왔는데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일단 하고 시작하자.

필자는 중학생 때부터 영어를 너무나도 싫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는 항상 남아서 단어 시험을 봐야했고, 나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랑 같은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나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가야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학 학원 선생님이 말하길 "과학고를 가면 국어, 영어 및 수능 공부 안하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해라."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중학생2학년 시절의 나는 '아! 그러면 국어, 영어 버리고 수학,과학만 공부해서 과학고를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 당시의 과학고 입시 전형은 수학, 과학 내신만을 반영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내 수학, 과학 점수는 전교 2프로 안에 들었지만, 영어 성적은 거의 상위 30~40 프로 정도였다. 내 기억에 의하면 한 학년에 대략 360명이었고 영어 성적은 100등 밖을 나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과학고 3년 생활에서 내 머리 속에 영어가 학습된 기억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가 항상 모의고사나 그런 곳에서는 5~6만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나는 '아.. 의대가 가고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내 내신으로 의대는 무슨.. 연고대라도 붙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하는 성적이었기에 3학년의 나는 그냥 의대는 가고 싶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된다.

고3때 운이 따라줘서 거지같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의 한 학과에 합격하게 된다. 대학교 생활을 하며 매우 즐거웠기에 의대라는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 한 순간을 계기로 다시금 의대라는 꿈을 생각하게 된다. 이후 1학기 종강과 동시에 휴학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수능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시기의 나는 훈련조차 못 받은 훈련병이 전쟁터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 아마 이 상태는 지금의 예비고3 수험생,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겪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처음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 했을 때, 독학 재수학원을 찾아간다. 거기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어서 학습 상담이 가능하고 하기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첫 날, 나는 영어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머리 속에 딱 이 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수능 영어는 EBS 수능특강,영독,완성만 공부하면 그냥

성적 잘 나온다.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했다.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지금처럼 어떤 선생이 좋다더라, 어떤 교재가 좋다더라 이런 정보 하나 없이 그냥 그 선생의 말을 따를 수 밖에 ... 아마 이 상황이 대부분의 등급이 낮은 고3이 겪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EBS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주제 요지 문제만 해도 해석이 하나도 안되더라. 뭐 이걸 당연하다 싶었다. 단어장을 외워본 경험도 없고, 문장 해석 방법도 몰랐고, 이 당시에 구문 해석 강의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 그냥 하라는 대로 문제 풀고 단어 보고 하는데.. 뭐 한 지문 공부하는데 20~30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흥미는 떨어지고 점수는 안 오르고 이 악순환이 반복 됐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는 거의 손을 놓아서 그 결과, 71점으로 영어 3등급을 받게 된다.

이후 3수는 강대 본관에서 상반기를, 독학재수 학원에서 하반기를 보냈다. 처음 강대를 갔을 때,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바로 문제풀이 강의부터 진행해서, 혼자 구문 강의를 따로 들었다. 이 당시에 노베이스에게 이충권이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프리패스와 함께 책을 주문했었다. 처음 이 선생님을 들었을 때, ‘오... 이것이 바로 신세계?’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단어장 한 권을 꾸준히 외워갔다. 이후, 구문 강의를 거의 끝나갈 때 즈음, 6월 모의고사를 쳤고, 2등급을 간신히 받았다. 아마, 이 때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구문 해석이 가능했고, 영어 단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웠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 당시에 사용 했던 영어 단어 암기 방법은 후에 서술하겠다.

이후 이전에 다니던 학원과는 다른 학원에서 독학재수를 하게 됐고, 이충권 선생님 강의를 끝까지 따라가서 수능에서 89점으로 아쉽게 2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사실 이 시기에는 강의만 많이 들었지, 스스로 지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적었기에 지금 돌이켜 보면 2등급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든다.

4반수 시절에는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단어 암기 -> 강의 수강 -> 문장 해석 2회 -> 강의 끝나면 전체 2회 복습. 을 거치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올랐다. 또한, 이 당시에 orbi의 sheant께서 판매하시는 주간 kiss ebs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영어 해석량을 끌어 올렸다. 이전 수능에서 스스로 구문 해석을 많이 안 했기에 성적이 잘 안나온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그만큼 보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영어에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를 꾸준히 투자한 결과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10월 모의고사에서 97점, 수능에서 94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영어는 결국 많이 부딪치고 해석을 해 봐야 낯선 형태의 문장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지며 문제 풀이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었다.)**

이후 5수 시절에는 앞선 경험을 살려 주간 KISS EBS 풀 커리를 진행하면서 영어 자체에 감이 안 떨어지게 유지했다. 하반기에 이영수 선생님의 순서삽입 overview, 독해광(주제,요지,밀줄,빈칸), 김기철 선생님의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하여 문제 풀이 태도를 교정했고,그 결과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 95점을 받았고, 수능 당일에는 10분을 남기고 100점을 쟁취했다.

이 기간들을 통해 느낀 것은 ‘수능 영어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며,꾸준하게 지문을 해석해보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게 중요하구나’ 였다.

이런 긴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일지 알 수 있었다. 나처럼 영어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습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 긴 이야기들을 보면서 **‘수능 수준의 영어는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줄 몰랐고, 처음 공부를 할 때 전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100점까지 받아냈기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좋겠다.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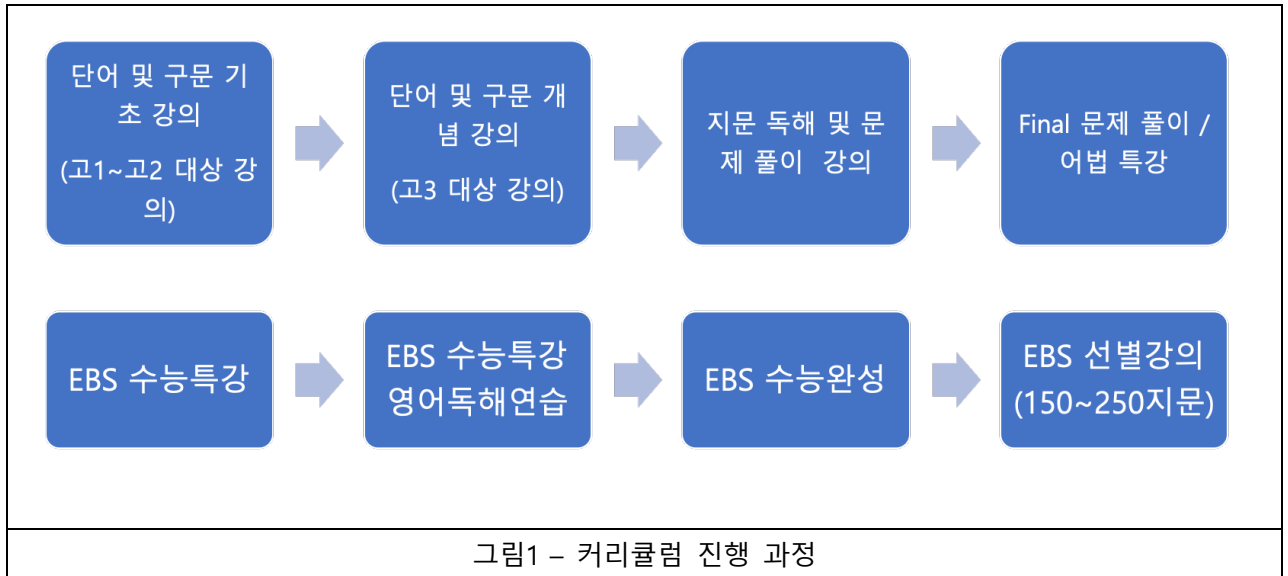
1. 학생들 중에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은 영어를 무조건 1등급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같은 경우 영어 1,2등급의 점수차를 크게 내기 때문에, 영어 2등급으로 인해 의치한약수를 아예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예외는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처럼 영어 감점은 작지만, 다른 과목 점수가 좋아서 가려는 학생이라면 상관없다. 근데 과연 그걸 확신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
2. 수능 준비 초기에 영어에 시간을 좀 쏟아도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수능 준비 초기에는 2시간~2시간 반 정도 영어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나중에 후반에는 1시간 반 정도로 줄이면 어느 정도 다른 과목에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영어 등급별 감점을 작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생각보다 정시 지원할 때 보면, 이 하나가 피눈물 나게 만든다.
4. 아래 모든 공부 방법은 내가 직접 시도했고 확실히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방법만을 적었다. 그렇기에 자신과 너무 맞지 않는게 아니라면 따라서 공부하길 바란다.

내가 들었던 강의 목록

- 이충권 선생님 : 한수비 문법, 구문, 독해 (구문 강의가 매우 좋았습니다. 2년 동안 구문 강의는 이충권 선생님 한수비 구문만 들었습니다.)
- 조정식 선생님 : 순서,삽입,빈칸 문제 풀이 강의 수강(저랑 잘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의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 선생님 : 문제 접근의 원리(순서, 삽입은 약간 불호입니다만, 그 외의 주제, 요지, 빈칸, 장문 등 유형 문제 풀이 방법은 매우 좋다 생각합니다.)
- 이명학 선생님 : 리드앤로직 빈칸, 순서삽입 (조정식 선생님처럼 저랑은 잘 안 맞았습니다. 다만, 강의 내용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수 선생님 : 독해광, 순서삽입 overview (아.. 개쩍니다.. 제가 여태 들었던 문제 풀이 강의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위에 저처럼 다른 강사님과 잘 안 맞으면 강추합니다.)

2. 1년 학습의 틀(커리큘럼 짜기) / 인강 및 교재 추천.

이 내용은 처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의 진행을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N수생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위 그림은 수능 영어 대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진행 순서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강사님들은 위와 같은 형태의 강의를 1년 동안 진행하십니다. 다만, 단어 및 구문 기초 강의의 경우 따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정말 노베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학습의 과정은 **단어 암기 및 구문 개념 강의 -> 지문 독해 및 문제 풀이 강의 -> EBS 지문 학습 및 선별 지문 학습 -> Final 문제 풀이/어법 특강/ 선별지문 학습/ 실전 모의고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의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EBS 연계율의 감소와 직접 연계 혹은 간접 연계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인 2021년 11월에 치뤄질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전과 연계 방식이 달라짐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아직 2022학년도 수능에서 EBS 연계를 간접 연계로 출제할지, 연계율은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2~1월 사이에 확정날 예정이며 아마 이를 기준으로 수능 학습의 기준점이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각 파트별 인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이후에 다룰 것이기에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단계**인 단어 및 구문 기초 강의는 고1~고2 학생 중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이 하기에 적합한 강의를 말합니다. 이 포지션의 인강은 사실 강사님께서 촬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쉬워서 다들 건너 뛩니다. 하지만, 영어 4~6등급 학생 중 고3 대상 강의가 어렵다면 꼭 돌아와서 이 부분부터 학습을 해야합니다. 특히, 단어장 같은 경우 워드마스터 2000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다면 꼭, **워드마스터 노란색 책** 먼저 하길 바랍니다. 저도 워드마스터 2000을 처음 외울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일단 노란색 책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암기를 했습니다. 아래는 이 단계의 강의들입니다.

Ex) 조정식-관참아 어휘,문장 / 김기훈-천일문 기본/ 김기철-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

이명학-일리(이 강의는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 문장에 main이라고 하긴 애매하긴합니다)/ 이충권
- 한수비 스타터 구문

두번째 단계는 이제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시작하는 단계로 구문 학습 및 단어 암기입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부족한 고3 수험생 및 재수생들이 구문 공부해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쉽게 건너 뛰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수능 공부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꼭 거쳐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문제 풀이의 베이스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합니다. 물론,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이미 영어 등급이 1~2등급으로 굳이 듣지 않아도 지문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면 건너 뛰어도 됩니다.

위의 단계를 진행하면서 워드마스터 2000을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day1개 분량씩 꼼꼼하게 암기하면서 구문 강의를 듣는 것이죠. **여기서 학습 해야하는 것은 문장의 형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틀을 기반으로 이후 문제풀이 학습과 EBS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문장을 배운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구문 공부를 한 번 하고 나면 약 80~90퍼센트의 학생은 **앞으로 모든 구문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EBS나 기출 학습을 해보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문 공부 이후에 다양한 지문들을 해석해보면서 막히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지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 조정식 - 믿어봐 문장, 어휘 / 김기훈 - 천일문 핵심, 완성편 / 김기철 - 문장 해석의 원리/ 이명학 - syntax / 이영수 - 구문20수 / 이충권 - 한수비 구문

세번째 단계는 흔히들 말하는 문제풀이 강의 입니다. 아마 이 단계는 대부분 학생들이 인강을 제일 많이 듣는 단계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 문제 풀이 강의를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합니다. 주제, 요지, 밑줄 문장/빈칸 완성/순서, 삽입 유형(간접쓰기)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이 강의들을 하나에 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주제, 요지, 밑줄, 빈칸 을 한 강의에 다 담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꼭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A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듣던 강의도 던지고 그 강의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강의도 끝까지 소화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 대 그러면 안되고 아래 말을 따라주세요.

학생이 들으려는 강사 몇 명을 고르세요. 4명까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식, 김기철, 이명학, 이영수 중에 문장삽입 및 빈칸 강의를 들으것이다. 라고 합시다. 제일 처음 해야할 것은 각 강의를 신청하고 OT 와 1강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전체 강의를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첫 강의를 통해 이 강사는 이런 스타일로 가르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이 따라하기 힘들 것 같거나 전달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강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강의를 붙잡고 끝까지 완강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4수 할 때, 조정식 선생님의 순서, 삽입 풀이 방식이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

다 보니 5수 할 때는 조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선생님을 찾게 됐고, 그게 바로 이영수 선생님의 overview 강의 였죠. **이처럼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강사와 강의를 고르고 그것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시도해보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능 1~2달 남겨 놓았을 때 나오는 강의로 Final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아마 이런 강의를 3년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경시하다보니 생긴 강의입니다. 막판에라도 문제 풀이 강의는 들어야겠고 그렇다고 긴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짧으면서도 전달력이 좋은 강의를 찾았기에 이런 강의를 유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파이널 문제 풀이와 함께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의 강의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다만, 여태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꼭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문제 풀이 강의를 잘 수강해왔고 연습까지 한 학생이라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파트만 선별 수강해서 문제 풀이 방식을 견고하게 다지면 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파이널 모의고사 해서 막 10회분 이상을 푸는 학생들도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많아야 6회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의고사를 푼다고 성적이 오르거나 실력이 느는게 아니다 보니 이 시기에 굳이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의 정규 커리큘럼과는 다른 EBS에 대하여 다루겠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EBS 연계가 70프로 였으며, 이 당시에 다루었던 EBS 교재는 EBS 수능특강, 수능특강 영어독해, 수능완성, 수능특강 듣기가 있었다. 여기서 key point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연계 7개의 문항이었다. EBS는 크게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연계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문항의 유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BS 교재에서는 A라는 지문이 주제 요지 문제로 나왔다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빈칸문제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지문을 여러번 해석해보고 수능 직전에 공부를 했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30초 내에 각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장에서 7개의 연계 문항 중 6개는 적어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 시키거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명확하게 고를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2022학년도 수능 즉, 현재 고3학생들 및 재수생이 맞이하게 될 수능에서는 이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연계율을 낮춘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직접 연계가 아닌 전부 간접 연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12월 말~1월에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결정을 내린 다음 알려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EBS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겠다.(후에 자세히 서술한다.)

EBS 학습에 앞서서 구문 학습 및 단어장 한 권을 꼭 끝내고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지문을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문 강의를 통해 배운 해석 법을 EBS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나는 주간 kiss ebs 교재를 통해

3~4월(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남) 부터 EBS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정해진 양의 EBS 지문의 단어를 암기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노출도 자체를 높였고, 선별된 지문을 미리 3번 정도 해석을 해보면서 그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매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행하여 6월 및 9월 모의고사를 치면 보통 직접 연계 문항이 쉽게 풀린다.

이후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기 전에 공백기에 어법 특강이나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하여 좀 더 엄밀한 문제풀이 방법을 학습하면 된다. 수능 완성 까지 학습한 이후 수능 1~2개월 전에 많은 인강 선생님과 독학 교재를 출판하는 선생님들이 EBS 선별 지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신다. 이를 수능 전까지 2~3회 정도 반복하면 수능에서도 직접 연계 문항을 쉽게 풀 수 있었다. 전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구문 학습/ 단어장 -> EBS 수능특강,영독 -> 문제풀이/어법 강의 -> EBS 수능완성 -> Final 문제풀이, 실전모의고사, 선별된 EBS 지문 -> 수능 응시

3. 단어 암기 방법(3등급 이하 필수)

가. 기본적으로 이야기

이제 이 단원에서는 단어 학습 방법과 암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다루겠다.

일단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단어는 전장터에서 사용하는 총알과 같다.(이 비유는 orbi의 셉티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다) 그렇기에 1년 동안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어는 꾸준히 외워줘야 한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단어 암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 풀이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그렇기에 수능을 준비하는 초기(1월~6월)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3등급 이하의 학생일 경우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혹은 나처럼 더 심각하게 중학 기본 단어도 모르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이다.

중학 기본 단어를 알고 있다면 1년 동안 한 개의 단어장만 꾸준히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 중학 기본 단어도 모른다면 1년 동안 2개의 단어장을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 등급별 추천 단어장

1) 3등급~1등급의 학생

이 등급대의 학생의 경우는 워드마스터2000 단어장 하나만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면 된다. 만약 다른 단어장을 쓰고 싶다면, 수능 영어 단어와 관련된 기본 단어장 하나면 충분하다.

이 중에서 1등급 학생 중에 이미 단어장을 한 권 다 외운 적이 있다면, 기출 지문과 EBS지문을 학습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꾸준히 외워주면 충분하겠다.

2) 3등급 ~ 그 이하 등급

이 등급의 학생들은 보통 중학교 기본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에 이 학생들의 경우 2주 동안 중학 영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워드 마스터 2000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기에 워드마스터 고등 basic(노란색 워드마스터)을 2~3주 동안 암기한 이후 워드 마스터 2000을 day1부터 차근차근 외워가자. 나 같은 경우도 중고등 기본이 없어서 고등 basic 을 끝낸 다음 워드마스터 2000을 외웠다.

다. 추천하는 단어 암기 방법

아마 학생들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동안 단어를 암기했던 방법이 각자 있을 것이다. 나도 또한, 낱지 쓰듯 여러 번 써보는 방식, 30분 동안 시간을 잡고 암기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단어 자체를 자주 보면 눈에 익어서 암기가 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방법을 시도하게 됐다. 실제로, 내 수험 생활 중 단어를 암기하기 시작한 삼수~오수 동안 계속 활용했던 방법으로 자신만의 암기 방식이 없거나, 자신의 방법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내 방법은 "모르는 단어는 자주 봐서 눈에 익히자"이다. 누군가는 이게 뭘 방법이나..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자주 보고 눈에 익을수록 자동적으로 머리 속에 저장되기에 나는 이 방법이 어느정도 최선이라고 본다. 실제로 많은 인강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니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단 방법은 간단하다.

4. 구문 강의 활용법

가. 기본적인 이야기

이 챕터에서 다룰 것은 '구문 강의를 어떻게 학습하는게 효율적인가?'이다.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제일 효율이 좋다고 느꼈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냥 쪽 하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따라해 보길 바란다. 다만, 모든 학습에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내가 하는 방법까지 다 해서 1개의 강의를 다 듣고 공부한다면 강의 시간x2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시간을 아까워 하지 말고 따라오길 바란다.

나. 추천하는 구문 강의

1) 1등급

사실 1등급 학생의 경우는 크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감 독해를 하고 있고, 구문 해석을 거의 못하는 경우라면 아무 선생님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라. 이 때, OT와 1강을 꼭 들어보고 결정해라. 그것만 그냥 꾸준히 따라간다면 해석을 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2) 2~3등급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사실 감으로 독해해서 문제 푸는게 기본 form일 것이다. 혹은, 구문 학습을 한 번은 해봤지만 낯선 지문에서의 해석을 거의 못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 등급대의 학생은 무조건 구문 강의 1개를 붙잡고 들을 것을 추천한다.

메가스터디의 조정식/김기훈/김기철, 대성마이맥의 이명학/이영수, 이투스의 강원우/그레이스/윤훈관 등 다양한 선생님들의 OT 랑 1강을 들어보고 한 선생님을 정해라. 그리고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라. 물론, 방법은 아래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따라가길 바란다.

3) 4등급~ 그 이하

이 등급대의 학생은 그냥 노베이스다.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사실 영단어를 아는게 많이 없을 가능성도 있고, 완전히 기본적인 감 독해 조차도 불가능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위 2~3등급 학생들의 구문 강의 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강의를 듣고 시작하길 추천한다.

만약 이 등급대의 학생들 중 아래 완전 기초 강의가 아닌 일반 고3기준 구문 강의를 들어봤더니 따라갈만 하다면 그 강의를 따라가도 좋다.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을 위해 기초 중의 기초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며 아래 강의 중에 하나를 듣고 나서 이후 고3/재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구문 강의를 따라가길 추천한다.

메가스터디 조정식 - 괜찮아 문장 및 단어 / 김기철 -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법칙 / 김기훈 - 천일문(기본)/ 대성마이맥 이명학 - 일리/ 이투스 강원우 - 해석 구세주 등..

다. 구문 강의 효율적 학습 방법

구문 강의를 듣는 다는 것은 특정 형태의 구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그 문장에 쓰인 단어 만큼은 알고 있어야 수업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예를 나 같은 경우 A라는 문장이 a b c d 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이라면 이게 구문으로 인해 해석되는 것인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 인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위처럼 어려움을 겪었기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구문 강의를 잘 활용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래는 내가 실제로 했던 공부 방식이다.

1. 일단 구문 강의는 하루에 1강씩 일주일에 적어도 3개의 강의는 듣는다고 생각을 하자. 일단 오늘 들어야 할 강의 목차가 1단원이라면, 1단원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문장들을 그냥 눈으로 훑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는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옆에 간단히 정리해도 좋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단어장에 추가로 써도 좋다.
2. 위의 단계가 끝난다면, 구문 강의를 수강하자. 1.5배속처럼 빠르게 하지 말고, 수업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들어라. 개인적으로 1.2배속으로 듣는 것을 추천한다.
3. 위처럼 강의를 듣고 나면 바로, 적어 놓은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한 번 훑어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들을 처음부터 스스로 해석해보자.
4. 이 분량이 1주일치 쌓였다면, 그 주 주말에 그 주에 들었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석을 쭉 해보자.
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특정 형태의 문장을 해석하는데 익숙함이 생길 것이고, 모르는 단어들은 해석을 통해 조금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것이다.
6. 위 과정을 책 전체가 끝날 때 까지 하고 나서 다시 책을 처음부터 쭉 보면서 문장을 해석해본다. 막힌 문장이 있다면 체크해 두고 그 부분만 다시 강의를 들으며 복습하자.
7. 아마 위 과정을 꾸준히 한다면 적어도 매일 2시간~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수능 준비 초반에는 영어에 이 만큼 시간을 쏟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자.

5. 독해 강의 활용법(문제 풀이 강의 활용법)

가. 기본적인 이야기

이번 챗터는 독해 강의 활용법입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강의는 주로 문제 풀이 방식을 다루는 강의로 주제,요지,밑줄,빈칸,어휘,순서,삽입 등의 유형을 풀어내는 강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을 꼭 따라서 읽어 온 학생들이라면 이제 구문 강의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구문 공부 꼭 한 번은 하고 문제 풀이 강의로 넘어가세요.** 자신이 1~2등급 나오는 구문 해석 능력을 갖췄다면 바로 문제 풀이 강의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구문 강의를 독학서든 공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들 중에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를 2개 있습니다.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의 독해강, 순서삽입 overview 이 두개의 강의는 매우매우 추천합니다.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더라도 꼭! 자신이 OT랑 1강을 들어보고 들을지 결정하세요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딱 2가지 입니다.

1. 방법론을 배웠으면 꼭 뒤에 달려 있는 문제들에 똑같이 적용해 볼 것, 스스로 적용해서 맞췄어도 강사가 푸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의로 확인하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할 것.
 - 저도 순서 삽입 공부할 때, 답은 90프로 정도 맞췄지만, 실제 선생님의 방법론을 완전히 따라서 해서 푼 문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스스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낸 경우도 허다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이 푼 문제는 강의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2. 문제 풀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각 문제마다 풀어낸 논리를 간략하게 2~3줄 정도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풀이 태도를 정립해 나가세요.

나. 문제 풀이 강의 효율적 학습 방법

1. 구문 강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강 이상씩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A + 내용A 관련 문제 풀이)가 2개 강의 분량이라면 괜찮다.
2. 강의에서 내용 A를 말한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갈 것이다. 이 때, 인강 들던 것을 멈추고 관련 문제를 풀자. 만약 자기가 애매하게 풀었다면 간단하게 한 두줄 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 라고 정리를 해두자.
3.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나의 풀이랑 비교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자. 여기서도 한 두줄 정도 정리해두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을 체크하자.
4. 이렇게 해서 1권의 문제 풀이 강의를 끝났다면, 다시 책을 처음부터 보면서 A4 용지 한 장에 문제 풀이 방법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후에 새로운 문제들에 최대한 적용하려고 해보자.
5. 순서/삽입/빈칸/밑줄 문항 같은 경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쉽게 보일겁니다.